

2021년 09월 2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9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13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55장(통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장 11~25절(신약p.379)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 말씀선포 / 성도의 선한 삶

성경은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잠시며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리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이 땅에 거하며 본향인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 말씀하면서 성도는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 합니다. 참으로 성도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에 속한 자의 태도와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와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적 소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시며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1. 인간적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 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는 헬라어는 “에피뮈미온”으로 그 원형은 “에피뮈미아”로서 성경에서는 “욕심, 정욕, 사욕, 탐심, 색욕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어짐으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결국 그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옛 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말씀하면서 사도바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욕망을 보면서 자신을 “곤고한 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도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 경우들을 보여 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아말렉 왕과 그들이 소유했던 양 떼와 소 떼가 아까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과 명예에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모를 파악하고 온 사무엘에게 뽐뽐하게 시치미를 떼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자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로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거짓된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속에도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목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빨간색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빨간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간색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파란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한 욕망에서 벗어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더욱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2. 종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 본문 13~16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본받는 구체적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관계 안에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격려하며 특히 상관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제도와 악한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하려는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권면입니다. 본문 17~25절입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으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때만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도전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옛 성품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49장(통377) 예수 따라가며

◎ 폐 회 / 주기도문